

| **SEA BENCH** |



진정한 해양문화를 모색해 ‘해양담론의 한마당을 만들자’

※ 편집자 알립 : 창간기념 좌담회는 2014년 1월 14일 부산코모도호텔에서 열렸다. 2명의 외국인 편집위원은 참석하기 어려워 구모룡, 김주식, 옥태권 선생과 김성준 편집주간이 참석하였다. 구모룡 선생은 한국해양대학교 동아시아학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김주식 선생은 해군사관학교 교수와 박물관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옥태권 선생은 부산소설가협회 회장과 경성대학교 외래교수로 일하고 있다.



김성준 : 먼저 좌담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바쁘신 분들이라 오늘 여러 선생님이 한 자리에 모이기까지 시간과 장소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칭) '해양과 담론'을 창간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본격적인 토의 주제로 넘어가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그 동안 해양관련 인문학 분야에서 출판되었던 정간지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만, 독자들을 위해 간략하여 정리하고 좌담회를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해양문화재단이 『해양과 문화』를 1999년부터 2011년까지 통권 27호를(까지) 발간하였고, 구 선생님이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장으로 계실 때 『해양과 이슈』를 두 차례 발간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기존의 국제해양문제연구소의 논문집을 이름만 바꾼 것이라 일종의 학술지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문학바다』가 해양재단에서 2010~2011년까지 5호까지 발간했다가 종간되었는데, 이것은 서명에 '바다'라는 글자만 들어있을 뿐 일반문예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해양대학교 박물관부설 장보고연구실과 한국항해항만학회가 공동으로 『해양평론』을 출간했었는데, 이것은 해양사와 해양문학의 만남을 시도한 학술지로 보입니다. 가칭 '해양과 담론'도 어찌 보면 이것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과 문학』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15책, 통권 16호까지 나왔다가 2013년에는 결호된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정리해 본 것처럼 해양문예지는 몇 가지가 출간된 것들이 있었지만, 해양사 관련 전문지가 없어서 애초에는 해양사학회나 해양사학회지 같은 것을 만들어 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 가지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첫째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작업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히 예상되고 되었고, 두 번째는 해양사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은데 과연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해양대학교 박물관에 근무하면서 구 모룡 선생님과 같이 작업을 했을 때에도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해양역사와 해양문학의 만남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 10월 31일에 목포해양대학교의 해양문화정책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제2회 해양문화정책콜로키엄을 개최했을 때 발표회만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발전적으로 승화시켜 보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항해항만학회의 후원을 받아 콜로키엄을 공동으로 개최해 왔었는데, 장보고연구실장과 한국항해항만학회 총무이사를 겸임하고 계셨던 한국해양대학교의 정태권 교수님이 항해항만학회의 총무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되면서 한국항해항만학회의 지원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해양문화 분야를 이끌고 가야 할 상황이 생기게 되었죠. 기왕에 이렇게 된 바에는 판을 새롭게 짜보자는 생각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새로운 잡지 발간을 검토했었죠. 그 결과 콜로키엄 뒷풀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를 하다가 옥태권 선생님이 〈해양과 담론〉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해양과 담론〉은 해양역사도 담고, 해양문화도 담고, 해양문화도 담고, 또 그것이 단순히 담론으로 그치지 않고 정책적으로 실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무크지는 해양역사와 해양문학, 그리고 해양문화를 한 데 아우르는 ‘해양문화·정책 무크지’를 지향한다는 데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오늘 좌담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말씀드렸으니, 이제 이 무크지의 성격에 대한 자리매김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원자들에게 설명할 때는 〈해양과 담론〉을 ‘해양분야의 창작과 비평’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좋으신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잡지명에 대해서 또 다른 좋은 의견이 있다면 얘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해양인문학과 해양문화를 아우르는 담론장 : 해양담론

구모룡 : 기존에 해양과 관련된 잡지는 주로 문학에 한정되어 있었어요. 그 동안에 우리가 해 온 것은 해양과 관련한 연구였죠. 문사철(文史哲) 가운데 철학보다는 문학과 역사 쪽의 연구를 주로 해 왔죠. 따라서 새로 창간되는 잡지는 해양과 관련한 인문학을 아울러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문학에 한정되기보다 문화로 확장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영화, 해양화, 해양사진, 해양음악, 해양 애니메이션, 해양게임 등도 아울러 해양문화콘텐츠 전체를 다루는 잡지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보이지만 문화로 한정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잡지를 만들 때 시각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늘 얘기하는 것처럼, 육역(陸域)의 시각에서 볼 것인가, 해역(海域)의 시각에서 볼 것인가에 대해 먼저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양을 보는 관점, 즉 우리가 해양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통일된 perspective, 일본 번역어로 시좌(視座)를 갖고 있는 논문, 논의, 콘텐츠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잡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목포대학교의 도서관화연구원은 주로 섬을 다루고 있고, 한국해양대학 국제해양문제연구소는 해양(海港)도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이순신 같은 주제도 조선이라는 한 국가의 시각에서 본 이순신인지, 바다 위에서 본 이순신인지를 질문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보면 동아시아 해적도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동안에 얘기되어 온 표류도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문학 쪽에서도 네덜란드 박연부터, 오기나와나 제주와 관련된 네트워크도 찾아볼 수 있고, 그런 것과 관련된 창작 자료들도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야를 갖고 잡지를 만들 것인가를 먼저 논의해 보았으면 합니다. 물론 담론

쪽으로 가지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김성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분들은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주식 : 구 선생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는 김성준 선생이 말씀하신 해양분야의 <창작과 비평>이라기보다는 해양인문사회학을 우리가 구축해 나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김주식 선생

부분이 매우 취약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인문사회학’이라고 하면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대중적으로 하기도 그렇고요. 그럴 바에는 차제에 우리가 대중적인 잡지들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 무크지의 독자층을 인텔리층이라든가 정책 당국자들, 산업계의 중견간부들을 포함하는 지적 엘리트층을 겨냥해야 기존의 잡지들과 차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해양계 엘리트층의 지적 갈증도 충족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식인들에게도 해양에 대한 인식을 넓혀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육태권 : 김 교수님 말씀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어젠다를 제시하는 쪽의 방향성을 지향하자는 말씀이시죠? 실제 비평보다는 이론 비평 쪽에 가깝게 나가자. 이런 얘기시죠.

김주식 : 네, 그렇습니다.

옥태권 : 저도 원칙적으로는 이의는 없는데, 조금 전에 김주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소 상충되는 면이 있는 듯합니다. 구 선생님 말씀처럼 콘텐츠를 포괄하게 된다면 상당히 대중성을 지향해야 한다는 말씀이셨고, 김주식 선생님의 말씀은 대중성보다는 지적 엘리트층을 겨냥하는 것이니까요.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를 조정해야 할 것 같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해양인문학과 해양문화를 포괄하는 그런 쪽은 바람직한 것 같고, 다만 문학 쪽에서 창작을 포괄하게 되면 정체성이 다소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굳이 말하자면 해양계의 <창작과 비평>이라기보다는 해양계의 <비평> 쪽에 가까운 무크지가 되어야 이론지향적인 것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문학은 당장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그쪽에 맡겨두고, 기존의 것들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독자적인 색깔과 어젠다를 가지고 지향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잡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방향성은 '해양인문학과 해양문화를 포괄하는 담론'으로 잡으면 되겠죠.

김주식 : 그러면 해양인문학하고 해양문화를 함께 아우르는 좋은 단어가 있을까요?

옥태권 : 지난번에 제가 제안한 바 있었던 '담론'이라는 낱말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모룡 : 그렇죠. 그런데 <해양과 담론>이 좋은지, 씩박하게 <해양담론>이 좋은지는 한번 재검토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해양담론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해양과 문학』도 원래는 <해양문학>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해양문학』이라는 잡지가 있어서 『해양과

문학』으로 했거든요. ‘과’를 넣는 것 보다는 『해양담론』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성준 : 제가 밖에서 설명할 때는 이런 성격이 무크지가 없었기 때문에 해양분야의 <창작과 비평>이라고 큰 고민 없이 말했던 것인데, 여기에서 다루어야 할 분야에서 해양문학에서 시나 소설 같은 것들을 어느만큼 포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구모룡 : 창작품을 우리 잡지에 게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작품은 아예 배제하고, 우리는 비평과 해석, 연구만 다루되, 김주식 선생님이 말씀대로 너무 아카데미하게도, 그렇다고 너무 대중적으로도 가지 말고 일반 대중이 아닌 식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잡지를 지향하면 되겠지요.

김주식 : 옛날에 <사상계>가 나왔었는데, ‘해양분야의 <사상계>’ 정도로 성격을 상징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만.

옥태권 : 교양지와 대중지의 차이는, 교양지는 고등교육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대중지는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신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별 고민 없이 읽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수준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주식 : 네, 그렇습니다.

구모룡 : 식자층의 해양의식을 불러일으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입안자들에게 어젠다를 제시해주는 잡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김주식 : 해양계의 고급지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옥태권 : 조심해야 할 것은 지나치게 이론중심으로 나가 학자들을 위한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김주식 : 그렇죠. 독자들이 호기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아이템이나, 이슈도 나와야 할 테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아야 내야 하겠지요.

옥태권 : 이론과 대중성 사이에 있는 전문적 교양지 수준을 방향성으로 정하면 어떨까 합니다.

시각은 '바다로부터(From the Sea)'

김성준 : 시야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나온 잡지들을 보면 콘텐츠의 구성면에서는 『해양과 문화』가 가장 폭이 넓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한계를 갖고 있었던 것은 첫째는 대중성 확보가 안 되었다는 것과, 시야가 '바다로부터'(from the sea)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일부가 판매되긴 했지만, 얼마나 판매되었는가 하는 것은 회의적입니다. '바다로부터'의 시각을 견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인재풀에서 해양 쪽이 적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김주식 :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말씀 중에 '프롬 더 씨(from the sea)'와 '투 더 씨(to the sea)'를 구분하려는 의도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성준 : 구모룡 선생님을 여기에 모신 이유 중 하나는 저희와 바다를

보는 시야가 같기 때문인데요. 해양문학을 보는 시야 가운데 일부는 소재에 중점을 뒀서 해양을 소재로 한 것을 모두 해양문학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죠. 갯벌을 소재로 한 갯가문학이나, 바다를 바라보고 감상하는 것도 들어가고, 아홉 가지 분류로 나뉘어서 그것을 모두 다 해양문학의 범주에 든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죠. 그런데 구모룡 선생님과 옥태권 선생님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다-배-항해라는 모티프가 있어야 해양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양문화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또 무엇을 해양인문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는가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에서 이미 구 선생님이 화두를 던졌다고 봅니다. 제가 이해한 바대로 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해양문학이라는 것은 ‘프롬 더 씨’의 시각에서 쓰여진 것이야 한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배를 선원으로 탄 사람도 있고, 승객으로 탄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배를 타고 바다를 보지만, 그 감상이나 느낌이나 산출물은 다르다는 것이죠. ‘투 더 씨’라는 것은 우리가 다루지 않아도 다루어줄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롬 더 씨’라는 것을 얘기했던 것은 구 선생님이 ‘해양문학의 정의’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해양과 문화』가 상당히 고급지와 대중지를 겸비하면서 바다와 관련된 소재를 넓혀줬다는 성과를 거두었거든요. 영화부터 미술, 박물관, 음악 등 상당히 많은 소재들을 발굴해 낸 것은 평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 그 콘텐츠들의 상당수는 해양과 관련된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음악이나 미술은 어쩔 수 없이 소재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시각 면에서 ‘프롬 더 씨’를 견지하지 않으면, 어디로 돌아가냐면 최남선 식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은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는 ‘프롬 더 씨’의 시각에서 얼마나 많은 비평문들이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 얘

기해야 할 주제 가운데 대중성 확보와 전문가 발굴이 중요한 주제인데, '프롬 더 씨'의 경험과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또 일반 사람들을 그런 시각 쪽으로 포섭하는 것이 제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구모룡 : 『해양과 문화』가 좋은 잡지였죠. 문제는 일단 바다를 알리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 편집이 들쭉날쭉했다는 거죠. 어떨 때는 굉장히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필진들이 방만하게 펼쳐지면서 잡지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혼란스러웠죠. 그러나 잡지 하나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한 가지만 뚜렷하게 정해놓고 그 안에서 해야 하는데, 이것저것을 섞어 넣게 되었던 거죠.

옥태권 : 『해양과 문화』는 기본적으로 바다를 정말로 곁다리도 하던지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다루거나 개의치 않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다 포괄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는 이론중심의 비평지로 범주를 좁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옥태권 선생

바다를 중심으로 놓고 보느냐 바다를 일부로 보느냐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해양대학교에 출강할 때 충격을 받았던 슬로건 중의 하나가 “우리에게 바다는 땅입니다.”거든요. 오거돈 총장 재임 때 한국해양대학교의 슬로건이었죠. 저것이야말로 육지적 생각이다. 바다는 바다이지, 왜 육지로 생각해야 하느냐? ‘당신들은 세상의 30%를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70%를 본다’라고 해야지요. 사실은 30%적 시각으로 볼 것이냐, 70%적 시각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이죠. 바다를 중심에 놓고 보면 모든 문제의 중심에 바다가 있는데, 육지를 중

심에 놓고 보면 바다는 주변부에 지나지 않게 되죠. 소재로 사용되거나 바다를 잠시 인용된 것만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있죠. 이 무크지에서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는 것이죠.

김주식 : 중요한 문제이고 여기 계신 편집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성준 : 그림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 보죠. 지금까지 얘기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잡지명을 '해양과 담론'으로 정해놓았었는데, 구 선생님께서 '해양담론'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여기에서 다룰 범위에 대한 것인데,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당초 해양계의 창작과 비평이라고 잡았던 것에서 창작은 빼고, 비평, 해양인문학, 문화 그리고 정책. 정책도 범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해양문화의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정책에서는 해양인문학이나 문화를 어떻게 고취하고 고무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주된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각 부분에서는 구 선생님의 지론인 '바다-배-항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제가 제기했던 '프롬 더 씨'도 마찬가지로, 중심에 바다를 두느냐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모룡 : 요즘 역사학에서 해역(maritime world)으로 세계사를 뒤집어 읽으니까 전혀 다른 역사가 전개됩니다.

옥태권 : 지구유기체적 관점이나 생태문학적 관점에서 볼 때, 바다-배-항해라는 한정짓는 것보다, 지구유기체적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이 아

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범위가 좀 더 넓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갯벌이나 연안까지도 아우를 수 있겠지요.

구모룡 : 강조를 하다보니까 바다-배-항해를 얘기했던 것인데, 그것을 중요한 가름선(split line)으로 두자는 얘기죠.

김성준 : 저의 기본적인 생각을 거칠게 말씀드리면 ‘비슷하지만 같지 않은’(似而非) 해양전문가들을 여기에서 걸러내는 채 역할을 하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해양문화재단이나 장보고기념사업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자칭 해양전문가들이 나타났죠. 해양문화학자대회를 보면 200명 이상이 참가하고 있던 말이죠. 과연 그렇게 많은 해양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개 재단이나 연구비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비슷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여기에서 채로 걸러줘야 하는 것이 해양전문가들이 해야 할 의무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문제는 거를 채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어떤 개념이든 모토든 무엇으로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김주식 :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작업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비슷하지만 아닌 것들은 저절로 구축(驅逐)되리라 생각해요.

구모룡 : 해양과 관련된 논의들이 해역세계론도 나오고, 동아시아중해론도 나왔죠. 윤명철 선생 말고도 프랑스와 지뿌로(François Gipouloux) 등의 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그야말로 바다를 중심으로 보는, 미국의 캘리포니아학파의 케네스 포머런츠(Kenneth

Pomeranz) 등과 같이 세계사를 중국이나 바다를 중심으로 다시 쓰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나면, ‘프롬더 씨’라고 하면 기존의 논의들이 과연 ‘투 더 씨’, 즉 육지의 시각에서 대상화된 바다연구였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은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모룡 선생

김성준 : 그것은 창간호에서는 여력이 안 되지만, 이를테면 콜로키엄이나 모여서 하지 않더라도 원고를 모아서 꼭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학이면 문학, 역사면 역사, 한국사면 한국사, 동양사면 동양사 이렇게 분야별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모룡 : ‘프롬 더 씨’의 시각에서 각 분야별로 이야기하는 담론들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옥태권 : 어떻게 보면 진정한 창간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구모룡 : 그게 먼저 있어야 돼요.

옥태권 : 본격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방향성만이라도 제시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김성준 : 그러면 역사 쪽에서는 김주식 선생님이, 문학 쪽에서는 구모

룡 선생님이 자그마한 소품을 하나씩 써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모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기득권에 대한 비평을 해야 하나까요?

김주식 : 그렇지만 이 책의 미래가 그것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옥태권 : ‘프롬 더 씨’와 ‘투 더 씨’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준 : 구 선생님은 문학 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 쪽은 구체적으로 잡히는 텍스트가 없잖아요. 역사에서는 서양사 자체는 논의할 필요가 없을 듯 해요. 한국서양사학계에서는 그러한 논의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한국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텐데, 좀 자유스러운 분이 두 분인 것 같습니다. 큰 담론들이 있죠. 9세기 장보고 시대에 한중항로가 명주항로에서 흑산도까지 사단항로로 향해했느냐, 과연 장보고 시대에 나침반이 항해에 쓰여졌느냐? 이것들은 하나의 논제지만, KBS 역사스페셜에서 방영되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진 어젠다거든요.

김성준 : 이 즈음해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죠. 첫째는 잡지명을 해양담론으로 갈지, 해양과 담론으로 할지 정리해 보죠. 해양과 담론으로 하면 조금 순화된 느낌은 있죠.

구모룡 : 해양담론으로 간단하게 가죠.

Ocean Discourse : 세계 해양인문학의 통섭을 향하여

김성준 : 제가 저희 유럽 쪽 편집위원인 루크 카이버스 박사에게 ‘해양과 담론’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의견을 물어보았었는데요, Ocean and Discourse라는 표현은 영어로는 생경하다고 하고요. The Ocean Discourse가 그나마 무난한 번역어라고 하더라고요.

구모룡 : 그러면 영어로는 Ocean Discourse of Korea가 되나요?

김성준 : 아니요. ‘of Korea’를 붙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한국으로 한정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책이 발전하면 세계인들이 기고하는 마당이 될 터인데요.

옥태권 : 그러면 영어와 통일시키는 의미에서 ‘과’를 빼고 『해양담론』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모룡, 김주식 : 좋습니다.

김성준 : 이제 자연스럽게 창간 배경과 성격이라든지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김주식 선생님이 얘기한 독자층을 어느 정도 된 것 같죠.

김주식 : 한 가지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잡지를 낼 때에 해양과학 쪽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도 논의를 해 보았으면 합니다.

옥태권 : 과학을 담기는 위험하지요. 그쪽은 해양수산개발원이나 해양과학기술원 등 전담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맡겨야 할 것 같

고요. 또 그 분들이 인문학적 시각을 갖고 대중적인 글을 써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김주식 : 그러면 과학 쪽은 일단 배제하는 것으로 하죠.

김성준 : 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See the Sea'라고 하는 50쪽 분량의 계간지를 내고 있죠. 한 쪽지가 길어봐야 2~4페이지 정도이니까 깊이 들어가지는 못하지요.

구모룡 : 우리 잡지에서는 공간이나 레저 등은 들어갈 수 있겠죠.

김성준 : 생태 부분은 들어갈 수는 있겠죠. 해안침식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삶의 공간에 관한 문제거든요.

김주식 : 해양과학을 완전히 배제한다고 해 놓고, 그런 부분을 다뤄버리면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옥태권 : 생태문학 쪽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루거든요. 인문학적 시각에서 다른 생태와 과학적 시각에서 본 생태는 다르다고 봅니다.

김주식 : 예를 들면 해양공학도 인간의 생활공간으로서의 바다를 접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공학으로 치부하기에는 요즘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해양과학에 대해 얘기해 보자고 제안했어요.

구모룡 : 연안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선진국들은 대양으로 나갔기 때문에 연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대양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대양 이야기를 하는데, 두 분이 이야기 하시는 과학, 건축 같은 것도 필자가 그런 글을 쓴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원고를 의뢰하여 신는 게 가능하겠다 싶으면 게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주식 : 그렇습니다. 일단은 해양과학은 배제하는 것으로 하되, 인문학적 요소가 내포된 과학은 포섭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옥태권 : 답론이 될 수 있는 것은 실을 수 있는데, 답론이 되지 못하는 것을 신게 되면 그것은 지나친 과학학술지가 될 수 있겠죠.

김성준 : 오늘 논의해야할 주제 두 가지가 한꺼번에 다뤄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독자층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해양전문가의 발굴 문제였는데요. 독자층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그렇게 가지만, 실지로는 밑에까지 스며들 수 있게 독자들이 사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죠. 아직 언급이 좀 안된 것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 특히 문학계나 역사학계에서 이와 같은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편집진들이 다 쓸 수는 없으니까요. 저변이 확대되어 가는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해양문화가 발전되어 가는 것이기도 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전문가의 저변을 확대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보았으면 합니다.



김성준 주간

제가 여기서 전문가 발굴이라고 한 것은 그 동안에는 아니었지만, 저희와 같이 작업을 하면서 저희와 같은 시각을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업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되는 분들은 안 되지만, ‘미처 몰랐었는데, 이런 시각도 있었네’ 하고 수용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내야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발굴이라고 말한 것은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이를테면 바다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소설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여름소설학교에 참가하는 것처럼,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세미나나 콜로키엄도 하고, 학술대회 같은 것도 열고 하면 되는데, 우리는 소박하게 시작해야 하니까요.

구모룡 : 해양문학 쪽에서는 한창훈 같은 작가도 섬의 시각에서 글을 쓰거든요. 세상을 보는 눈이 전혀 달라요. 그런 사람에 대해 자기 글을 발표하고, 저희가 토론하고 하는 거죠.

김성준 :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도 저희와 함께 하면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거든요.

구모룡 : 문학계에서는 그 분을 그런 시각으로 안 봐 주거든요. 우리가 한번 다뤄주면 시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김주식 : 전문가 발굴이라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너무 이 분야를 강조하다 보면 자칫하면 산으로 갈 수도 있고, 풍토를 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필진이 한정되더라도 처음 몇 호까지는 나아가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책이 나온다는 것이 알려지면 원고를 투고해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모룡 : 편집위원들이 시각은 비슷하기는 한데, 우리끼리 가령 한두 사람을 우리 매체와 관련하여 얘기를 듣고 싶으면 모셔다가 집중적으

로 워크숍을 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준 :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구모룡 : 왕창 모여서 조금씩 자기 얘기만 발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영양가 있는 것을 하자는 거죠.

김성준 : 그러면 우리 센터가 맡을 수밖에 없는데 재정적 여력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구 선생님. 한국해양대 박물관부설 해양문화연구실은 잘 돌아가나요.

구모룡 : 국립대 등록금이 계속 동결되고, 예산이 줄어드는 바람에 없어졌습니다.

김성준 :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그런 것을 6월경에 한번 하는 것은 어떨까요. 소설가나 역사가 중에서 한 분을 모셔다가 집중토론을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하죠. 각자 자신들의 논리와 이론을 설파하고, 우리도 우리의 시각에서 얘기하다보면 그 분들도 일부는 받아들일 것이고, 고수할 것은 고수할 것이고, 그렇게 하다보면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김성준 :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구모룡 : 뭐, 해양담론 워크숍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요. 또 해양담론 콜로키엄도 괜찮고요.

김성준 : 잡담도 좋고, 해담(海談)도 좋고요. 제가 만들어 놓았어요. 해

평(海評)도 괜찮고요.

구모룡 : 인천이나 목포, 또는 그 분이 계신 데로 찾아 다시면서 친목을 도모하면서 시야도 공유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성준 : 그러면 전문가의 저변 확대 부분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열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니까 당분간은 그 다음 단계 분들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가자. 그게 가능하면 10월에는 학술콜로키엄이 있으니까, 6월 중에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자. 이렇게 정리하죠.

구모룡 : 바다가 타자화되어 있는 것을 넘어서야죠. 사실 요즘 다문화라는 것도 결국 바다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가령 섬 문화라는 것은 평등주의입니다. 육지에서 다문화라는 것은 관리 위주의 시각인데, 섬의 다문화라는 것은 자기들끼리 평등한 관계거든요. 다문화를 바다의 시각에서 보면 그러한 것들을 끄집어 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육지중심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해양문화가 거칠다고 하는 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김성준 : 제가 깜빡 했는데요. 구 선생님 얘기를 듣다가 생각나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99년 루크 카이버스 책을 번역하면서 옮긴이 말에 '마레 노스트룸, 푸트라 노스트라'(Mare Nostrum, Futura Nostra)라고 썼어요. 이 말은 '우리들의 바다, 우리들의 미래'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이 요즘은 해양수산부 같은 데서 '우리의 미래, 바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 머리 속에 늘 있는 것은 '바다야! 놀자'가 아니라 '바다에서 놀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전국적으로 요트 강습을 많이 하는데, 대다수의 요트스쿨에서는 요트 타는 법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것도 면허 따는 교육을 주로 시키고 있죠. 요트를 타고 어디로 가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쳐 주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것도 제시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구모룡 : 아까 옥 선생님이 말하신 것인데, 오거돈 총장이 전경수 교수와 동창인데, 전 교수님이 저희 학교에 들렀다고 저보고 와 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 교수님이 “이보게. 거돈이. 저거 틀렸네. 저거 바꿔라!” 그러시더라고요. 해양수산부 장관을 했던 분조차도 바다를 육지로 보는 게 일반적이죠.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의 바다에 대한 인식이 낮은 차원에 있다고 하겠죠. ‘바다야 놀자’가 아니라 ‘바다에서 놀자’가 맞는 거죠.

김성준 : 그래야 ‘프롬 더 씨’의 시각이 나올 수 있죠. 자, 이제 오늘 좌담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 논의주제로 설정하고 있었던 세 가지 주제들이 다 다루어졌고, 또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 간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해양담론으로 이름이 정해진 이 무크지가 우리나라의 대륙지향적인 인식을 바꾸고, 바다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새로운 사고를 제시하는 담론장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좌담회를 마칠까 합니다.